

# “오월정신의 위대한 승리” 광주시민들 일제히 ‘환호성’

●금남로 4만여명 운집 승리의 함성

전일빌딩-금남로공원 300m 구간 탄핵 열기  
전남대·조선대 총학 등 5월 재현 거리행진  
방한용품·어묵 나눔 등 눈길...커피 선결제

“와” “국민이 이겼다” “민주주의의 승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1980년 계엄군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혔을 때 이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광주 시민들의 행진과 목소리가 다시 한 번 거리를 가득 메웠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145곳이 참여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30분 동구 금남로에서 제6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를 개최했다. 눈이 내린 뒤 다소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일찌감치 패딩, 목도리, 장갑 등을 꺼입은 채 오후 2시부터 5·18민주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장갑을 낀 손에는 형형색색의 응원봉

과 ‘윤 정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주최 측 추산 4만여명의 시민들은 전일빌딩 앞부터 금남로공원까지 300m 가량을 짙은 채 오월 풍물단의 풍물놀이 장단에 맞춰 피켓을 흔들고 ‘탄핵’을 외쳤다.

이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국회 본회의 장에서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의결 생중계를 시청했으며 여야 국회의원들의 투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발표하자 일제히 환호했다.

1980년 5월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인제열(60대)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광주시민으로서 이번 탄핵안 가결을 응원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가결돼 기쁘다”며 “자유·평등·평화의 오월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민이 한목소리를 낸 결과인 것



지난 1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광주시민총결기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애리기자

같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대학생 김소영(22·여)씨도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의지이자 승리”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회 시작 전에는 각 참여단체가 44년

전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재현하는 거리 대행진도 벌였다.

“5·18민주화운동 발원지” 전남대학교 의 재학생 등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불법계엄 규탄한다’ 등 손팻말을 들고 대학 정문에서 출발해 금남로까지 행진, 집회에 합류했다. 조선대생들도 학교에

서부터 금남로까지 걸어와 가세했다.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곳곳에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방한용품, 대회 피켓, 먹거리 등을 나누는 별도 부스도 설치됐다.

오월어머니집,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 새마을회, (사)솔잎섬터 등

관계자들은 떡국과 주먹밥, 어묵 등 따뜻한 음식과 핫팩을 나눠주며 윤 대통령 탄핵 응원을 함께했다.

일부 시민들은 5·18민주광장 주변 카페, 봉어빵 가게 등에 아메리카노, 허브티, 홍차 등 음료 총 400여개와 간식 80여개를 선결제해두기도 했다. /주성학기자

## “뜨겁고 질서 있던 열망...탄핵 이끌어내”

●서울여의도·광주 금남로 집회 현장 이모저모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을 염원하며 거리로 나온 국민의 바람은 흑한을 뚫고 위정자들에게 닿아 결실을 거뒀다.

미약했던 개인의 의집은 촛불 아래 모여 거대한 함성이 됐고, 보다 뜨거워진 열망은 ‘질서 있게’ 분출되면서 탄핵을 이끌어냈다.

◇시민·선출직 공직자 등 ‘한마음’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 여의도 앞에서 연 촛불집회와 광주비상행동이 광주 금남로에서 개최한 제6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에는 각각 주최 측 추산 100만명 이상, 4만명 이상이 참석했다.

각 집회에는 이색적인 이름의 단체가 다수여서 눈길을 끌었다.

여의도의 경우 ▲방구석에서 굴 까먹고 싶은 사람들 모임 ▲전국 용기사 협회 ▲부인도 주민 대표 연합 등이, 금남로에는 ▲나만 고양이 없어 연합 ▲말안듣고 시위 나온 아들딸 연맹 등이 함께했다.

광주지역 지자체장 일부도 집회에 동참했다. 문인 북구정장은 여의도 ‘오월 밥

차’ 부스 자원봉사자로 나서 집회 참여자들을 위한 먹거리 나눔에 손을 보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은 금남로 집회의 시작과 끝을 시민들과 함께하며 ‘尹 탄핵’을 외쳤다.

◇신명나는 축제장 만든 ‘MZ의 힘’

집회 참여자의 손에 촛불 대신 응원봉이 들리면서 현장의 분위기도 무거웠던 이전과 달리 흥(?)으로 들쭉였다.

이는 집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20·30대 등 젊은 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아직까지 집회 참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지만 MZ 세대의 참여율도 크게 뒤지지 않았다는 게 광주비상행동의 설명이다.

여의도 집회의 경우 열정적인 10·20대 참여자가 특히 눈에 띄었다. 이들은 요즘 유행하는 대중 가요는 물론, 트로트도 가리지 않고 따라 부르며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집회 현장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로 융화됐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 역시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뒷정리...성숙한 시민의식 성숙한 시민의식도 돋보였다.

인파가 한 데 몰리면서 현장을 나가고 들어오는 이들이 섞여 엉키는 경우



지난 1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광주시민총결기대회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떡국을 나눠 주고 있다. /김애리기자

가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참여자들은 “지나가신데요. 비켜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들은 참여자들은 다시 주위에 비켜줄 것을 요청했고, 한 걸음씩 물리면서 길이 만들어졌다. 이에 서울 여의도와 광주 금남로에서는 구름 인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안전사고 없이 집회가 마무리됐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집회 현장을 떠나는 이들의 ‘자발적 뒷정리’에서도 빛을 발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미리 준비해 온 봉투에 쓰레기를 주워 담아 다시 가방에 넣은 뒤 자리를 떠났다.

경찰의 인파 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곳에선 “천천히 오세요”라거나 “반대로 우회하세요”라며 무사 귀가를 돕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승리기쁨속 ‘이제 시작’ 결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축제장으

로 바뀐 집회에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던 참여자들은 아직 끝이 아닌 만큼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할 것을 결의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동조해 탄핵안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압박해 거여 이 탄핵을 이끌어냈다”면서도 “그러나 탄핵은 아직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했지만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란 사태의 연장을 기도했다”며 “헌법재판소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극우적 신념의 소유자도 있다. 만약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는다면 광장에서 피 흘리며 이룩한 우리의 승리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완전한 승리를 위해 뜨거운 공론장을 만들고 매주 승리의 광장을 열자”며 “정치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우리의 요구와 힘을 모아 나가자”고 열변했다. /안재영·주성학기자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